

대상그룹, 지주회사 설립 “재도약”

대상홀딩스 8월1일자로 공식 출범 ... 경영투명화에 효율성 제고 목적

대상그룹의 지주회사 대상홀딩스가 8월1일 공식 출범했다.

대상그룹은 대상의 인적분할을 통해 순수 지주회사 대상홀딩스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8월1일 발표했다.

대상홀딩스의 대표로는 임창욱 명예회장과 김상환 전 대상 건강사업본부장이 선임됐다.

대상홀딩스는 8월17일 자본금 185억원에 발행주식수 1846만3099주로 재상장되며, 대상은 8월5일 자본금 277억원에 발행주식수 2769만4648주로 변경 상장된다.

대상홀딩스는 그룹비전 추진 및 전략수립, 신규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산하에 대상, 대상팜스코, 대상식품, 대상정보기술, 상암커뮤니케이션즈 등 5개 자회사를 두게 된다.

대상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8/03>